

하루만에 읽는 기독교사회복지론

기독교복음사역원
사역장 손영

기독교사회복지론

1. 사회복지(社會福祉, Social Welfare)

- ① 구빈법(救貧法, Poor Law, 1597년)
- ② 비스마르크(Bismarck)의 사회보험제도(1884년)
- ③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2. 기독교 사회복지론

- (1) 기독교 사회복지
- (2) 구약성경에 기록된 사회복지

- ① 효사상과 노인복지
- ② 공동체의식과 노예해방

3. 신약성경과 사회복지

- ① 빈민계층을 위한 성경적 복지
- ② 여성과 성문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복지

4. 사도바울과 기독교 사회복지

5. 기독교사회복지의 발달과정

- ① 구약시대(~BC.1)
- ② 신약시대(초대교회)(AD.01~89)
- ③ 교부시대(AD.90~312)
- ④ 중세시대(AD.313~1516)
- ⑤ 종교개혁시대(1517~1860)
- ⑥ 현대교회(1861~2000)
- ⑦ 한국교회(1880~)

6.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 ① 성경적인 사회복지사상
- ② 한국교회와 사회복지의 필요성
- ③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방향

7. 기독교 지역복지 선교

- ① 교회의 복지실천 방향
- ② 교회의 사회복지 사명과 역할

8. 교회복지 서비스의 전망과 과제

- ① 사회복지기관 프로그램

기독교사회복지론

1. 사회복지(社會福祉, Social Welfare)

사회복지란(Social Welfare)란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그 가운데 복지는 Well과 Fare의 합성어입니다. well(잘, 충분한)은 satisfactorily(잘), successfully(성공적으로), reasonably(합리적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fare(요금)는 state of thing(물건의 상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서 welfare는 “불만이 없는 상태, 만족할 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사회불평등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그 기원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救貧法, Poor Law, 1597년)과 독일 비스마르크(Bismarck)의 재해, 질병, 노령연금 등 사회보험제도(1884년), 그리고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1년 6월에 설립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 위원회”의 윌리엄 베버리지(W.H. Beveridge)위원장이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을 5대 악(惡)으로 규정한 보고서입니다.

① 구빈법(救貧法, Poor Law, 1597년)

중세시대 빈민구제는 교회와 수도원과 장원(莊園), 길드(guild, 상인단체 등)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6세기 엔클로저법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도시부랑아와 주거부정의 노숙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수도원이 해산되면서 교구(敎區)가 구빈사업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빈세(救貧稅)의 세금이 발생하고 구빈위원회가 설치되었다가 1601년, 구빈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후 1662년, 주거부정의 노숙자들을 출생지로 환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723년, 빈민을 새롭게 설치한 구빈원(救貧院)에 수용하여 필요한 공공근로를 하게 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제를 금하였습니다. 1782년, 원외구조(院外救助)가 인정되었고, 1795년 스피남란드제도에서는 일정한 급여미달자에 한해 구빈세에서 생활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834년, 원외구조가 전부 폐지되었고, 그후 구빈사업은 국가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20세기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여 1946년, 국민보험법 등 발전적 복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② 비스마르크(Bismarck)의 사회보험제도(1884년)

사회보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3개의 국가는 독일, 영국, 미국입니다. 철혈정책으로 알려진 비스마르크는 1861년, 국왕 빌헬름 1세가 즉위한 후 재상의 위치에 올

라 사실상 독일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비스마르크 수상은 1866년, 오스트리아와 1870년,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독일제국을 통일하였습니다. 그후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계급과 용커(대지주)계급과 신흥 부르조아계급간의 갈등과 충돌양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화는 도시내 엄청난 규모의 노동자그룹을 자동적으로 형성하게 하였습니다. 불공정한 분배와 도시빈민의 증가, 노동력 착취 등 노동문제가 최악에 달하였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노동운동과 일치하면서 조직적인 노동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비스마르크는 1878년, "사회주의진압법"(Sozialistengesetz)을 채택하여 사회입법정책인 사회보험정책을 실현하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1880년, 제국보험공단을 설립하고 1883년, 세계최초의 의료보험을 채택하였으며, 1884년,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폐질연금을 제정하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이를 위해 강제보험, 중앙집권식 통제, 사적보험회사의 배제, 국가보조금의 지급 등 4대원칙을 정하고 국가중심의 산재보험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입법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주층의 반대에 부딪혀 중앙집권식 통제와 국가보조금지급은 제외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하였고 보험료는 노동자가 3분의 2를 부담하고 고용주가 3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노령폐질연금은 노사양측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관리하는 고용노동조합위원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③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베버리지보고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요약되는 영국 사회보장제도로써 서구식 복지국가모델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1년 6월에 설립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 위원회"의 윌리엄 베버리지(W.H. Beveridge)위원장은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을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는 5대 악(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극히 보수적인 베버리지 경이 다소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사회개혁을 이루어 내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보고서를 공표한 1942년 12월1일이 독일의 런던 대공습이 있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기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부자들만의 특권이었던 경제적 자유를 영국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삶(national minimum)으로 확산하였습니다.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보험법, 1947년, 국민부조법, 1948년, 아동법이 연이어 제정됨으로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력은 영국 국가 전체를 혁신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복지정책은 국내총생산의 22.4%까지 확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IMF까지 겪게 되었지만 영국의 국민적 복지는 계층별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에 비하여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기독교 사회복지론

성경은 고아(소년소녀가장), 과부(모자가정,한부모가정), 이방 나그네(외국인근로자), 곤궁한 품꾼(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계유지자), 빈민(기초수급자), 노예(학대받는자), 빚진 자(다중채무자), 노인(근로능력상실고령자), 장애인 등을 구제하는 것을 교회가 담당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아 스스로도 궁핍한 환경에 있는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세워가며 더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중세시대 수도원과 구빈원은 국가가 아니라 교회가 직접 구제를 담당하였음을 증명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성장지향적이었던 20세기 50년을 지난 한국의 현실은 성장을 멈추고 초고령화사회의 길로 가면서 사회복지(Social Welfare)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생산적 복지와 맞물려 수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복지의 최상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은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탁월하며 위대한 복지이며 영원하고 항구적인 보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지는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군신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시작은 있어도 종료 기한이 없는 항구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서 이 땅의 소유물은 그렇게 욕심 내거나 독차지 해야할 당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이웃과 나눌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결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발적인 구제와 복지의 모멘텀(Momentum)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하고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입는 것이 있다면, 그 이웃이 함께 입어야 하고, 내가 먹는 것이 있다면 그 이웃이 함께 먹어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풍요로움이 있다면 이웃이 함께 그 풍요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가운데 지극히 일부를 적선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부자청년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를 행한 후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근심하여 되돌아간 그 청년이 다시 예수님을 찾았다는 구절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대 변두리 성전길에서 강도만난 사람을 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전을 읽는 유대관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척당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며 그 사람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누가복음10:25~27)

20세기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대전은 수천만명의 인명을 학살하는 잔인함을 여과없이 드러내었습니다. 6백만명 이상의 유대인이 홀로코스트에서 무자비하게 숙청당하였고,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코소보 등 세계각

지에서 인종청소라는 이름하에 자행되어 온 인간학살의 주인공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지배를 통하여 독점적인 이상국가를 실현하려 하지만 결코 달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망을 초래할 뿐입니다. 한때는 국가보다 앞선 구제와 복지를 담당하였던 교회는 국민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패하였고 구제와 선교와 복지는 모두 후퇴하였습니다. 진정한 구제와 선교는 그 자금이 고여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러가서 어느 누구도 독점하거나 정지할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금이 멈추고 누군가의 통장속에 존재하는 한 그 자금이 흘러갈 곳은 고갈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며 죄의 길인 것입니다.

21세기는 교통(Transportation), 통신(Telecom), 무역(Trade), 관광(Tourism)의 4T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은 전 세계를 일일생활권으로 인도하였고, 통신은 정보의 스피드세계로 사로 잡았으며, 무역과 관광을 통하여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유층과 일정소득 이상의 특정집단의 전유물처럼 사용되고 있을뿐 빈곤계층에게는 오히려 1970년대가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을 인도하였던 기독교정책은 세상을 뒤쫓아가기에도 역부족입니다. 기독교 사회정책은 휴머니즘과 결합하면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정책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속에서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모든 구현의 발화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 기독교 사회복지

기독교와 사회복지는 기독교회 내의 섬김에서 교회 울타리 밖의 이웃에 대한 관심과 섬김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 사회복지가 세상의 복지체계와 다른 점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성을 가진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관점에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본주의 중심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인류에게 최소한의 행복권을 누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강제적, 자발적 행위라면 기독교 복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구원교리”와 “복음교리”를 포괄적으로 행위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신학계에서는 사회복지를 휴머니즘의 대표적 사업으로 보고 교회중심의 영적 구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주의 계통에서는 사회적 참여, 정치적 참여와 계몽과 선도적 역할을 주창하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였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이념적 성향과 정치참여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사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입니다. 이와 반대로 진보주의의 입장에서 사회는 복음의 대상인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고 변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는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는 “기독교공동체가 가진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소외대상과 구제대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와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중심에서 모든 기본적인 환경과 물질과 터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 모든 혜택을 원시적인 복지라고 규정할 수 있으나 인간의 욕심이 없었다면 모든 인류가 함께 그것을 최적의 환경속에서 누리고 있었을 것이며 이보다 나은 복지구현은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대의 발전과 과학의 태동은 인류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경향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기독교사회복지는 세상적인 변화와 흐름에 역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회복지의 출발점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속에서 해답을 찾고 복지가 복음적 구현의 바른 도구가 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구약성경에 기록된 사회복지

구약시대에 과연 사회복지가 존재하였을까? 창세기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기원과 인간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제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원론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창조"를 사회복지사상의 근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기원이 여기에 있음을 기록한 것이며 인간의 자유의지, 에덴의 특별한 혜택이 곧 복지의 구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죄와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의 소유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곳이 곧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며 세상은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힘을 가진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지배하고 평등은 깨어졌으며, 평화는 강력한 자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수고와 땀으로서 회생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창세기3:18~19) 여자에게는 10개월의 임신이라는 고통이 주어졌고, 인간의 삶은 수고와 고통으로 이어졌지만(창세기3:16~17)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진 수고와 고통을 서로 나누어 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힘의 균형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자가 약한자를 도와 함께 일을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복지이며 공동체 구현의 길이었습니다.

① 효사상과 노인복지

신명기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재판에 관한 정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신명기

16:18~20) 재판관은 공의와 공평으로서 백성을 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뇌물을 받아서 거짓으로 판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재판관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재판관이 곧 거짓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발적 범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피성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신명기4:41~43,19:1~3) 고대근동의 탈리오(lex talionis)법칙은 동해보복(同害報復) 원칙을 주장하였습니다. 레위기 24:20에는 상해보복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와 같은 탈리오의 법칙을 적용한 전형적인 보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우발적 범죄에 대하여 관용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용서와 배려의 법칙”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여성의 인권문제에도 신중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혼전 성관계로 의심되는 처녀성에 대하여 남편으로부터 모함을 받는다면 여성은 처녀성을 증명하는 표를 가지고 장로에게 가서 면책을 받고 남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밖에서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면 폭행한 남자를 돌로쳐서 죽이되 여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은 성밖의 치안부재로 인하여 여성이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내에서 통간하다가 적발되면 남녀 모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성내에서 여자가 강간을 당하는 경우엔 여자가 반항하고 소리를 질러야 하기 때문입니다.(신명기22:23~27) 강자인 남자에 대하여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성폭행문제는 구약시대에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부부공동체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십일조 제도는 사회복지 기금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매 3년마다 제사장 가문의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 헌신해야 했습니다. 십일조는 제사장인 레위인의 독점이 아니라 가난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공동체의 복지였습니다. 이러한 구제를 통하여 나이 많은 노인과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이 소외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26:12~15) 이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기초적인 생필품의 불공급으로부터 오는 아사자(餓死者)를 막고 고독사(孤獨死)를 막는 최초의 생명존중의 규정이었습니다.

십계명(출애굽기20:1~17,신명기5:7~21)은 모든 법전의 기원인 동시에 모든 사회복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령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바르게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그 어떤 평화도 누릴 수 없었으며, 상호 불신과 첨예한 대립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만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신앙할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혜택을 누릴수 있었으며, 이것은 모든 역사속에서 규명되어진 사실이었습니다. 1에서 4계명을 지키지 않는 인간은 5에서 10계명을 어뜨한 경우에도 지킬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어뜨한 면에서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신명기5:16)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부모를 신뢰하고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한분을 신앙하지 않는 인간이 오직 하나의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효(孝)사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할때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계명을 통하여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땅에서 인간의 생명이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출애굽기20:12) 효(孝)사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세가지였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자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땅에서 소산을 해야 양식이 풍요로와 지도록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땅에서 많은 소산을 내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세 번째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장수의 축복입니다. 그냥 병들고 가난하게 오래도록 산다는 것이 아니라 풍족한 땅의 소산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생명의 영원함에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인간에게 영생은 없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본체로서 신앙의 부모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16에는 이것을 "복"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있어서 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이 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과 그 개념이 원천적으로 구별된 사상입니다.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65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995년, 5.9%에서 2000년, 7.1%, 2010년, 8.3%, 그리고 2017년에는 14%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경제불황과 자동화 시스템의 발전으로 생산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노인복지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노인대학을 비롯하여 수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 활천제일교회가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인대학 성과를 보이자 정부는 경로사상의 모범적 사례로 규정하고, 노인복지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 또한 공공

근로와 지하철 안전 등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지방분권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각양의 노인문제 대책을 마련하지만 예산이 따라주지 않는 공약(空約)일 뿐 제자리 걸음만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노인대학과 경로예배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노인들에게 한끼 식사를 제공하고 작은 선물로서 보답하려 하지만 생산성 있는 교회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예산을 확대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레위기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레위기19:32) 교회는 장로들을 세우고 원로들의 고언을 경청하며 예의를 갖추어 정성을 다함으로서 후대인들에게 교훈이 되려고 하지만 교회의 윤리관도 세대의 경계를 넘으면서 점차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리더하였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지금은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순위가 바뀌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어떤 상황속에서도 세상을 쫓아 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사상이며 인생의 유산인 것입니다.

② 공동체의식과 노예해방

“노예”(奴隸, slave)란 “인간을 재산과 재물, 가축과 물건처럼 취급하여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소유와 매매가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사시대 이후 등장하였습니다. 고대사회에서 “노예제도”는 당연한 사회 관습이었습니다. 신석기시대 농경문화의 발전과 청동기 시대와 철기시대를 맞이하면서 노예는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노예의 구성원은 채무노예, 범죄자, 전쟁포로, 아동유기, 노예가 출산한 자녀노예, 등으로 분류되었는데 고대 그리스는 전체 인구의 5분의 2가 노예였을 정도로 노예문화가 일상화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제도는 초강대국들의 전유물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자랑하는 지배구조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30년동안 노예화 하였습니다. 페르시아제국과 앗수르제국과 로마제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속에서 자유는 억압되었고, 노예생활과 포로생활에 고단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구조는 고대근동사회에서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며 자신들이 감당해야할 노동의 몫을 약자들에게 씌우고 지속적인 지배구조를 강화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사회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노예제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자(주인,족장,고용인)는 약자들을 종(노예,부족외인)으로 고용하여 그들의 생계

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이 되면 주인은 종과 그들의 가족들을 해방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종이 주인과 함께 계속적으로 생활하기를 자원하면 구약의 예법을 준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출애굽기21:1~11)

최초의 노예문헌 기록은 BC. 1760년경의 “함무라비법전”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1444년, 포르투갈 라구스에는 아프리카 노예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최초의 “노예시장”(Mercado de Escravos)이 설립되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650년에서 1900년까지 1100~1800만명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홍해와 인도양과 사하라 사막을 경유하여 매매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으로 매매된 흑인노예들도 940~1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흑인노예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8세기 지중해와 대서양에서 활동한 바르바리해적은 서유럽과 아메리카에서 125만명의 백인노예를 매매하는 등 반발작용도 일어났습니다.

노예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의 아프리카지역 국가에 대한 악한 탄압정책과 북미지역의 백인들에 의한 흑인 강제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우월주의와 흑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서 극악한 노예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에 의해 미국은 1850년, 노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남미와 북미로 분열되며 전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인 미국 남부지역은 노예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에베소서를 인용하며 노예제도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반대로 웨이커, 메노나이트 등 기독교 인도주의자들로 구성하는 북미 기독교인들은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대접하라는 마태복음의 황금율을 인용하여 노예제도를 반대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노예제도에 대한 첨예한 찬반논쟁을 동일한 성경에서 논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집트 노예였던 시절을 회상하며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출애굽기21:10~14) 한국은 BC.1000년경 고조선시대로부터 조선시대와 1900년대 초기까지 머슴제도가 있었으며, 세계 각국이 강대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노예제도를 합법화 하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노예와 머슴제도를 완전히 철폐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1895년 2월 13일, 기독교인인 윤치호가 자신의 노비를 석방하고 일정한 재산을 주어 자유케함으로써 한국최초의 노예해방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노예제도가 성경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폐지운동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1897년 11월 1일, 노예제도에 대한 기독교인 토론회에서 100명의 노예가 해방되었고, 모든 노비문서는 소각처리 되었습니다.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만민평등원리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였습니다.(신명기15:12~15,출애굽기21:1~11) 특별히 동일한 동족의 노예거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남녀평등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업을 가져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주거식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명확하였습니다. 주인은 종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노동의 댓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생활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만 댓가를 지급받을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규정이었습니다. 로마카톨릭교회는 노예제도를 금지하였습니다. 922년, 코블렌츠 공의회와 1102년, 런던공의회, 1171년, 아마공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예금지를 주창하고 선언하였지만 중세초기 유럽의 노예제도는 활황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카톨릭교회는 해외영토에서의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예행위를 합법화하였습니다. 1452년, 교황 니콜라스5세는 “뒀 디베르사스”(Dum Diversas)라는 교황칙서를 통하여 포르투갈의 알폰수 5세에게 “사라센인, 이교도, 그 외에 신앙없는 자를 세습노예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노예무역을 합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미니크회 수도사들은 산토도밍고의 에스파니아 정착촌에서 인디언 원주민들에 대한 노예화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들 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하였으며 로마 카톨릭 사제들과 함께 노예제도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불법적인 노예합법화는 곧 기독교도 노예의 탄생이라는 보복으로 자행되었습니다. 비잔티움과 오스만전쟁으로 12,000명의 기독교도들이 이슬람세계의 노예가 되었으며 이러한 충돌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에 노예제도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고문과 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탄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인적 탄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용주 역시 종업원을 약자로 취급하는 전근대적인 경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비정규직 직원과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희롱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기업은 사회복지 혜택을 직원복지차원에서 제공하고 고임금으로 특별한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에서는 대기업과 같은 혜택은 물론 기본적인 혜택마저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신노예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식생활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서 3D업종에 그들을 막무가내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행정으로 인하여 불법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노예는 빈곤계층과 소외계층, 장애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 트래피킹”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은 매년 400만명이 국제적으로 밀거래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1998년, 미국 린다 스미스 국회의원이 설립한 국제희망공유단체는 매년 5만명의 여성들이 강제 성매매 현장으로 밀매되고 있

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모든 정보가 차단된 북한지역내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중국지방의 탈북자들에 대한 노예제도도 여전히 심각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노예문제와 수직적 인간관계는 구제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빈부격차에 의한 불평등문제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유권 문제와 배상에 관한 규정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빈곤계층에 대한 대출행위는 이자불지급 원칙을 정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치였습니다.(출애굽기21:26~22:25)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어떠한 연유로 빈부격차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빈부격차와 이익중심의 사회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가치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유재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자기 부족내에서는 땅에 대한 매매가 성행하여 계급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강조하였습니다. 추수할때에는 곡식을 발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 것을 말씀함으로서 가난한자와 과부들을 배려하였습니다.(레위기19:9~10) 결론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죽음에 이르러서는 결국 1GRAM도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성취한 모든 소유가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고, 우리 모두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습관과 관습과 태도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행복한 선물은 "믿음"과 "은혜"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은 종말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히브리서11:6) 이것이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무엇을 소유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에 대한 소유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3. 신약성경과 사회복지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인간의 구원문제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우리 모두의 삶을 복잡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말씀하고 성취함으로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이 완전하게 종결되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성경은 최상의 복지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마가복음1:15,마태복음4:17,누가복음4:43) 4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표본(누가복음17:20~21), 하나님 나라의 계시자(마가복음4:11~12,마태복음11:25~26), 하나님 나라의 투시(마가복음3:27)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시 유대사회의 가장 확실한 복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땀가없이 치료하였고 완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수천에서 수만명을 몇 회에 걸쳐서 먹이셨고 그 누구도 땀가를 지불한 사례가 없었습니다.(누가복음1:52~53)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돌보시고 살리는 기적중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어떤 땀가를 요구하거나 그들이 지불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실현할수 없는 동시에 하늘나라의 거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빈곤계층, 병약자들, 여성과 아이들,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배려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이라는 근원적인 자유선언이었습니다.(누가복음1:52~53,4:18~19)

예수께서는 당시 가장 외면받는 여성질병과 치료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누가복음4:38~39),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누가복음7:11~17), 만성하혈병으로 고생하는 여성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고(누가복음8:43~48), 18년간 병환에 사로잡힌 여성을 완치하였습니다.(누가복음13:10~13) 당시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여성들을 돌보고 치유함으로서 예수님의 평등적 인간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을 향한 기독교인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출 때 의미가 있고, 소금은 부패하거나 넣었을 때 그 맛의 품격을 높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조력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흑백논리의 단죄에서 인류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강자와 약자로 대변되는 빈부의 격차와 성적 차별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고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속에서 서로 일치된 연합을 이룰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유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나누

고,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함께 평화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인간사회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직적 조직관계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 놓음으로서 모두가 수평적 섬김의 한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재하는 세계이며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① 빈민계층을 위한 성경적 복지

예수님은 전형적인 빈곤계층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지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마굿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헤롯의 장자 살해사건을 아슬하게 모면하였지만 결코 순탄한 삶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멀어진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와 여성과 아이들의 친구로 살았던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 닥쳐진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평을 갈망하는 소시민들로부터 귀를 닫지 않았지만, 그들의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영원무궁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들을 강제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역사속 그 현장으로 들어 가셨습니다. 언제까지나 받으려고만 하는 나약한 인간들을 질타하거나 꾸짖거나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 댓가로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 또한 어떤 댓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 마다 수많은 인파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천박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마주 앉았으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불편함을 들었으며, 로마제국에서 하지 못한 유대사회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언 하였습니다.(요한복음8:32) 로마제국의 압제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감시속에서 그들의 삶과 현실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직접 변호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낙타에 비유하였습니다. 낙타인 부자가 바늘귀보다도 작은 천국의 출입구를 돌파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향하여 기초수급자이며 노숙자인 나사로 보다도 더 위험한 지경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나사로가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오늘을 넘기지 못한채 아사할 직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위험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난은 죄라는 말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후 나사로가 구걸하던 부자도 수많은 재산을 남겨 놓은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또한 명의를 불러놓고 밤새도록 치료와 간호를 했지만 생명을 연장하는데는 실패하였습니다. 부자가 죽고 그 또한 어떤 한 나라에 도달하였습니다. 그가 도착한 나라는 매우 뜨겁고, 땀이 식지 않으며, 먹을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른 나라를 바라 보게 되었고, 나사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의 소리를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서 물한방울을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믿을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나сар로가 부자에게서 얻을 것이 있는 것이지, 부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 나사로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나사로는 생전에 매우 가난하였지만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비록 거지 신분으로 구걸해서 생명을 이어 갔지만 그에게도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이땅에서 가장 비참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서 실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졌던 부자는 그 삶의 결과대로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탐욕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부(富)가 자신의 생명까지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정의 하였습니다.(누가복음 12:15) 어떤 부자가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현재의 곡식창고로는 수많은 곡식을 쌓아 둘수가 없어서 새로 곡식창고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밤에 그 부자를 데려가 버린다면 그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누가복음 12:15~21) 사람들이 나눔에 인식한 것은 “조금만 더” 가지려는 욕심때문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그 때부터는 나눌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조금만 더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결정적인 흠이었습니다. 나눔은 평등과 화합이라는 두가지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함으로써 나눔과 회복과 화합과 평등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식탁위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병자들과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권력에서 밀려난 자, 빈곤계층의 무능력자, 배척당하고 소외된 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와같은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지는 공평입니다. 완전한 수평이고 바른 평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복음의 첫 번째 행동 강령입니다.

② 여성과 성문제

고대사회는 남성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에겐 어떠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특별히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력한 가부장제도는 남성이 한명 이상의 여성과 혼인할수 있고, 성관계 또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피지배자의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혼인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분류되었고 아버지에게 결혼에 관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여성은 남편의 감독하에 집안일을 씬없이 해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아들을 출산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여성의 인권은 모두 박탈되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남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이혼 성립이 되지만 여성은 이혼에 관한 권리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뜻하지 않은 이유로 남편이 사망하면 여자는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창세기38장) 이것이 형사취수(兄死娶嫂)라는 제도입니다.

12년동안 혈루증, 즉 만성자궁출혈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를 넘어 신약시대에도 혈루증은 부정한 여인으로 규정되어 그 사람이 만지는 것 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레위기2:15) 월경이 지났음에도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의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은 여전히 대중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정을 해 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유대관습에 의해 어쩌면 거절당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겔으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수많은 인파속에서 자신의 옷을 누군가 만졌다는 것을 알게된 예수님은 그 장본인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것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외면하는 그녀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엔 곤란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질병과 상황을 설명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께로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지거나 그들과 조금이라도 부딪혔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과 불결한 관계가 있었고 그것은 유대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찾아 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앞에서 그녀가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혈루증에 걸

린 그녀의 목숨을 건 놀라운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군중에게 닥쳐진 위기와 문제는 일시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녀가 이제는 혈루증 여인이 아니라 지극히 건강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12년간 그녀는 혈루증을 앓았었고, 이 질병은 숨겨져 있어야 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만나게 된다면 그녀의 질병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상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평안하게 귀가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누가복음8:43~48)

예수께서는 당시 불평등한 대우속에서 방치되었던 여성과 여성의 질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성은 부정의 대명사, 남성은 성결의 대명사로 여겼던 유대의 성차별의 근거는 무엇이이었을까요? 유대율법과 사회계약은 그녀와 그녀의 질병을 단죄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를 비공개적인 음지에서 공개적인 장소로 인도하며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서 그 후로는 그녀의 행보에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것은 이제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혈루증을 앓고 있었을때는 그녀를 고립시켰고, 부정한 여자로 단정하였고, 심지어 그녀가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곳에도 갈수가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나설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건강성을 회복하였을 때 그녀에게 씌워졌던 모든 멍에와 차단벽은 허물어졌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치유결과는 증명되기 어렵고 끊임 없는 의심의 대상이 되어 더욱더 고립화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질병을 치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립된 그녀를 세상밖으로 인도해 내었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간음한 유대인 여인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끌려 나와 마을 광장 중앙에서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과 간통한 남자는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알수 없지만 그는 이 자리에 함께 끌려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는 여자는 무릎을 꿇은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의 손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죽음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례받은 유대인인 예수님은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여자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에게 재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에 따라 이 여자의 목숨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문제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매우 궁금해 하였습니다.

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재판관이 아닌 변호인으로 바라보는 듯 하였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바라본 예수께서는 땅에다가 무엇인가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겹에 질린 여인에게 "안심하라"는 글을 적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일어난 예수께서는 입을 열어 돌을 든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람을 자신있게 돌로 쳐 죽일만큼 그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주십시오." 유대의 율법은 너무나 많은 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나열된 죄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적용한다면 단 한사람도 무죄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유대의 율법은 간음하는 것을 바라 보는 것 또한 적지않은 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율법의 엄격함을 보여 주었을 때 자신들이 지은 죄 또한 경감없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 여자와 같은 방식의 처형이 불가피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차례로 돌을 내려 놓았고, 자신들을 향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광장에는 이제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 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겹에 질린 여인에게 눈을 들어 그들 모두가 떠나가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여인이 무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의로운 변호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공평한 재판관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인의 죄를 정죄하여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모든 죄를 탕감하여 주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여인이 이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으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약속하고 자신의 길로 돌아 갔습니다.(요한복음8:4~11)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1만달란트에 달하는 거액의 빚을 지고 파산의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선한 채권자는 그의 빚을 전액 탕감해 주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의무를 모두 면제받은 시몬은 죽음의 위기에서 기사회생하며 평화로운 발걸음으로 채권자의 집을 나섰습니다. 귀가길에서 그는 자신에게 1백데나리온을 빌려간 후 제대로 갚지 않은 이방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간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목을 조으며 빌려간 돈을 지금 당장 갚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는 지금 당장 그 돈을 갚을만한 능력과 재물이 없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친구는 조금만 더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조금전 자신의 상황과 너무도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처지가 달라지면 이렇게 변할수 있을까요? 바리새인 시몬

은 애원하는 이방 친구의 손을 강제로 잡아 이끌어 법정에 고발하여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방인 여자는 1백데나리온의 부채를 해결하기 까지 감옥에 투옥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한 채권자는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1만달란트의 채무탕감을 무효화하고 즉시 재청구하였으며 그를 법정에 고발하여 감옥에 투옥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1만달란트라는 거액의 빚을 진 후 그것을 전액 탕감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만달란트의 60만분의 1도 되지 않은 1백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 친구를 감옥에 넣는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마태복음18:23~34) 시편 기자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시편49:20) 유대인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온 특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남녀의 결혼을 하나님의 관계속에 이루어진 연합이라고 하였습니다.(마가복음10:2~9) 부모를 떠난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속에 이루어진 연합이므로 사람이 임의로 분리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상호존중과 상호 배려속에서 서로 가족공동체를 세워 가도록 하여 모세의 율법적 이혼제도를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③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복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지는 "낮아짐"(겸손,온유)과 "섬김"(봉사,헌신)에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과 섬김을 일관성있게 나타내고 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낮아짐은 겸손과 온유의 태도이며, 섬김은 봉사와 헌신의 자발적 행위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편견"(선입견)과 "차별"(불평등)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이든 세관원이든 언제나 복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편견은 선입견과 비판적인 시각이며, 차별은 불평등과 불공정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섬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무시하고 지시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께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유를 설명하였을까요? 어른의 관점에서 어린 아이는 소유물처럼 여겨 낮은자, 지시받는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바르고 지혜롭게 양육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서로가 일등이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꼴찌가 가장 높은 자라고 역설하였습니다.(누가복음9:47~48) 왜 꼴찌가 일등이 되는가? 그것은 그가 가진 무능함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경쟁과 다툼과 분쟁과 교만을 가장 큰 무능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거룩한

장소가 특별히 구별되어 있지 않고 모든 곳이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하였다는 떨기나무는 시내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봄비는 시장가운데,
우물가와 가난한자의 울타리안에서 불꽃을 발하며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등의 원리는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어떤 사람도 스스로
진리에 이르지 못함으로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속에 있
음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4. 사도바울과 기독교 사회복지

다소에서 출생한 사도바울은 가브리엘의 자제로서 바리새교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의 강력한 사건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단 하나의 사건으로 그리스도를 추적하던 바울의 생애는 180도 전환되어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Corinth)는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를 연결하는 도시로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의 좁은 지협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선박들은 헬라의 남단을 우회하는 위험을 피하려고 이곳을 가로질러 항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중요거점으로서 고린도는 여러 민족과 다양한 계층이 집중화된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당시 2만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야외극장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펼쳐지는 운동경기는 그리스, 로마, 동양인들까지 참석하는 등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고린도의 명물은 역시 1천명의 매춘부들이 성행하는 아프로디테(Aphrodite)의 여신전이었습니다. 고린도의 도덕적 타락상은 "코린티아조마이"(헬리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단어가 "매춘 행위를 행하다"라는 의미로 퇴색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북쪽에는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Asclepius) 신전이 있었고 도시의 중심부에는 아폴로 신전이 자리잡고 있는 등 12개 이상의 대형 신전들이 고린도 사회와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상권의 남쪽지역에는 술집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수많은 술단지들이 술 창고들로부터 끊임없이 옮겨졌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도 타락한 도시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주께서 환상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백성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사도행전 18:1~17, 고린도전서 2:3) 그리고 주께서 하셨던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지금은 유실되고 현존하지 않는 한통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고린도전서 5:9, 7:1) 힘들게 설립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상호간에 불만이 커져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교회내의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등으로 분열된 파당문제(고린도전서 1:11), 계모와의 간통사건(5장), 도덕적 타락(고린도전서 6:9~20), 그리고 결혼, 음식, 예배, 부활 등에 관한 것입니다. 경악스러운 탈선적인 신앙과 풍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이루며 세속화의 잔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실례로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육체적 방종의 기회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그 자유조차 절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찬예식과 영적은사의 올바른 사용, 공중예배시의 올바른 태도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11~14장) 바울은 영적 은사는 교회의 건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여야 할 것을 특별히 강

조하였습니다. 부활의 문제로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강조하면서 참된 소망을 기원하였습니다.(15장)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등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지사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강한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약한 자들의 배려(고린도후서1:27)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화합과 평화는 말씀으로부터 도래한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불협화음이 갖는 문제의 모든 기원과 해결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에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로마서3:5) 그것은 그리스도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증거하신 사랑으로 성도와 성도의 일치와 화해를 성취해 갈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고린도후서5:18) 사도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예루살렘교회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고린도교회가 구제와 선교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을 말하였습니다. 성도와 성도들간의 구제와 협력은 사도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부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한것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교역자로서 성도들의 도움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생계수단의 일과 사역을 병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사역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보다 안정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어려움과 고통의 현장에 있을때에도 교회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을 회심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격려와 위로와 권면을 이어가는 최고의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중에 설립된 교회로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비교적 친밀하였습니다. 빌립보 서신 이전에 두차례에 걸쳐 바울의 부족한 재정을 뒷받침 하였으며(4:16), 바울이 로마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다시한번 헌금을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와 함께 동역하는 동안 병약하여졌으나 회복된 후 빌립보로 돌려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선택받은 성도로서의 기쁨과 함께 빌립보서의 전반을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1:3~11) 바울은 로마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전파에 유익을 주었다며 감금생활을 염려하는 빌립보의 불안한 심리를 위로하고 안정시켰습니다.(1:12~26)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증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1:27~30) 바울은 서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화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2:1~4)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로커스 클라씨커스"(Locus classicus)를 사례로 들며(2:5~11)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2:12~18)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을 소개하며 그들을 존귀히 여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2:19~30)

에베소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속에 흐르는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단절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스스로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의 교각을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과 인종을 새 인류로 자신의 몸(교회)안으로 함께 초청함으로서 주인과 노예의 차별을 철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인습을 깨뜨렸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남여는 물론 노소와 빈부격차 등 모두 평등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신앞에서 “화해”를 촉구하였고 에베소 교회는 응답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충격적인 사상을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섬김과 화목과 친교를 이루며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회복지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로부터 발현하여, 사랑, 은혜, 공동체, 교회, 구제, 섬김의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갖는 사회복지사상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되었고, 초대교회는 상호 협력과 지원과 교류를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은 남녀간의 문제에 있어서 “음란”과 “음행”, “간통”의 문제를 염려하였습니다. 실제로 고린도교회에서는 계모와의 간통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고린도전서5장) 사도바울은 즉각적인 징계조치와 관련한 사도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음란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도바울은 남녀의 정상적인 결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이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단순한 성적만족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이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한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남녀의 성적행위가 자칫 신앙생활에 저해될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12세에 결혼을 하고 남자는 20세에 결혼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은 그 어느곳에서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지참금을 독차지 하려는 악한 남자들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결혼즉시 여성들을 노예로 매매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여아를 출산하여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의 아버지는 딸을 방치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종과 자유인과,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하나라고 선포하였습니다.(갈라디아서3:27~28,고린도전서12~12~13) 그리스도의 여성에 대한 배려는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평등의 원리를 주장한 것으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이미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성전앞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여 뛰어 다니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제지하려 하자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천국에 비유하며 아이들의 안전과 평화를 허락하였습니다. 유대전통에 관습적인 제자들과 당시의 문화에 대응하는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원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서 당시 천대받던 여자와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었고,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앞세워 그들을 "천국"의 반열에 까지 올려 놓음으로서 아이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유대사상에서 여성은 남성의 노예적인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들은 교회안에서 잠잠하고(고린도전서 14:34), 남편에게는 복종을 계속하며(에베소서 5:22), 자녀들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역할자로 살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여성들의 복종이 노예적인 신분조치인가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안에서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유인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고린도전서 7:22) 사람은 본래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 신분으로 살아 왔습니다.(로마서 6:12~23) 죄의 노예로서 신분 변화가 전혀 없을 것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찾아와서 죄로부터 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고린도전서 7:24) 2천년전 노예문제는 보편적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생활을 한 치욕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후로도 페르시아제국과 앗시리아제국, 그리고 로마제국에 이르기까지 식민지시대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민족이 자국의 국민들에게 까지 율법을 적용해 노예와 유사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갖는 함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폐기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였고, 하나님과 평화적인 관계를 성취하였습니다.(로마서 5:1) 이것으로서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용서와 화해, 모든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화해가 가능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였으며 그 자유의 성취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습니다.(갈라디아서 5:1, 로마서 6:14) 신약성경에서 복지는 화해와 은총의 자유가 삶의 현실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복지의 실현은 "에클레시아"(Ekklesia), 즉, 교회공동체와 함께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든 복지의 원천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며 이것은 실제로 향후 모든 교회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5. 기독교사회복지의 발달과정

① 구약시대(~BC.1)

구약의 사회복지의 모세의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임을 구약의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인간관계속에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빈곤계층을 위한 십일조(신명기14:28~29)를 제정하고, 남겨진 이삭을 나누고(레위기19:9~10), 면제년을 시행하여 빈곤계층의 채무자를 면제하는 것(신명기15:1~2)은 구약의 제도가 매우 진보적인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에 대하여 도피성을 두는 제도(신명기4:41~42)는 생명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에서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50년 주기의 희년제도(신명기25:8~55)는 노예들을 위한 해방기념일로서 평등권을 보장하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② 신약시대(초대교회)(AD.01~89)

구약시대가 율법적 복지를 채택하였다면 신약시대는 희생과 봉사와 섬김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하고 영속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로서 인간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앞에서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밀한 구제(마태복음6:1~4) 실현과 병든자를 치료하는 것(마태복음8:1~4),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교회성도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원칙은 무소유에 기초하였습니다. 서로 나누고, 함께 사용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성찬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속으로 복지가 나타났습니다.

③ 교부시대(AD.90~312)

사도시대 이후 속사도와 교부시대(AD.90~312)는 매우 절제된 사랑, 인내, 자비, 청렴, 청빈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생활은 현저하게 엄격하여 금식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금식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풍요로운 삶은 그 자체가 최악시 되었습니다. 반대로 과부와 고아와 어린아이들과 병든자들에게는 보상이 필요하였고, 최대한의 배려가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진 클레멘스(Clemens)와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Polycarp)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인물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독본을 기록한 바나바(Barnaba)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상호 공생공존하여야 함을 강조한 헤르마스(Hermas),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고아와 빈민과 노예와 채무자들을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터툴리안(Tertullians), 과부와 병자와 빈민을 구조하라는 카푸리아누스(Caprianus) 교부들은 교부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④ 중세시대(AD.313~1516)

AD. 313년, 콘스탄틴황제의 밀라노 칙령이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15세기 종교개혁시대 이전까지 중세시대는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고아와 과부와 노예와 채무자들을 위한 구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7세기, 교회는 속죄의 일환으로 현물기증을 받아 교회건축사업과 구제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레고리 황제이후인 1631년, 교회의 수도원은 숙박, 병원, 보육, 요양을 수행하는 구빈원(救貧院, Workhouse)을 개설하여 고아와 과부와 노령자와 병약자와 수행자 여행객을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영세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익전당포를 설립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였으나 노숙자의 급증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⑤ 종교개혁시대(1517~1860)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구제사업과 구제시설을 분리하여 구제시설 관리는 국가의 소유와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존 칼빈(John Calvin)은 복음전파를 중심으로 구제사업은 교회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다고 주장하여 구제사업과 전도사업의 양축을 추구하였습니다. 웨슬리(John Wesley)는 런던에 무료 병원진료소를 개설하였고 영국내외 노예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개혁자 로올라(Loyola)는 예수회를 설립하여 고아교육과 취업알선에 주력하고 마르다의 집을 별도로 설립하여 여성들의 피난처로 제공하였습니다.

⑥ 현대교회(1861~2000)

종교개혁 이후의 복지사업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구제대상자가 제외되거나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869년, 영국 런던에 최초의 자선조직협회COS(Charity Organization Society)를 조직하여 교회의 자선사업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1884년, 런던 토인비홀에 인보관(隣保館, Settlement House)을 설립하여 빈곤계층의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훈련과 구제와 관련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877년, 미국 버팔로에서 자선조직협회COS를 조직하고, 1889년, 아담스(Jane

Addams)는 토인비홀을 모토로 시카고 헐 하우스(Hull House)를 창설하여 소년심리원법과 공동주택법, 이민자와 흑인에 대한 정책개선, 여성노동자 근로개선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스쿠더(Scuder)는 뉴욕대학교내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re)를 설립하였습니다. 기독교의 구빈원과 인보관 사업은 사회단체들의 사회복지관 설립을 주도적으로 견인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대적인 사회복지의 효시는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온 전통적 구제정책의 실현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⑦ 한국교회(1880~)

한국의 복지사업은 1880년, 미국선교사들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초기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으로 전개한 복지사업은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사업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의 의료선교로 한국인의 서양의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입국으로 교육사업이 구체화하였습니다. 스크랜턴은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당시 여성들의 교육을 주도함으로써 매우 진보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선교사들은 선진농업 기술을 혁신하여 농업을 현대화하고 농휴기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박중독과 음주에 취한 농업인들을 일깨우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6.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① 성경적인 사회복지사상

그리스도는 “종”으로 이땅에 오셨습니다. 지배자가 아니라 “섬김”자로서 생명까지 내어 줄 각오와 다짐으로 철저한 “봉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요한일서3:16)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조명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각인 되었습니다.(빌립보서2:5~8, 마태복음20:25~28)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칭되는 이스라엘과 유대는 섬김에 앞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오랜 시간동안 기독교인들을 위험에 직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환경과 조건과 또는 스스로에 의해 언제나 믿음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계층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배려와 참여를 통하여 그들을 이해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로서 기독교인은 체험의 종교가 되었으며 모두가 그리스도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의 여정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국들의 통치속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주어졌으며, 그속에서 현대인이 체험할수 없는 탁월한 기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은 곤고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매와 과실을 주었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무소유, 절제의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습니다. 영적 삶을 위하여 선지자가 있었고, 사회적 삶을 위하여 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왕은 하나님이 기쁨을 부었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전통으로 믿었습니다. 때로 왕은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했고, 어떤 사람은 왕이 워냐 선지자가 워냐고 질문하지만 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늘 한결같이 사람에게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므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강력한 진리는 시대와 환경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등한 위치에 있음은 모든 진리를 구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문제와 모든 악의 발화점이 되는 것입니다.

1884년, 미국 장로교 의료선교사 알렌이 입국한 후 1885년, 광혜원을 설립하고 1903년, 맹인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09년, 부산 나환자수용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교육, 의료, 농촌계몽사업을 통해서 근본적인 복음사업을 향하였습니다. 1925년, 한국 장로교는 “사회부”를 설치하고 1930년, “농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1932년, 총회에서 가결한 “사회신조”에는 정신병자의 보호원, 고아원의 양육원, 걸아들의 실업교육, 연로자와 불구자, 맹아를 위한 시설, 양로원, 쇠약자, 여자 구호원, 나병과 폐병환자

를 위한 전문병원 설립, 가난한자들과 함께 공장에서 그들을 심방하고 여자 노동자를 위한 간호부 확보,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전도사업을 위한 공장의 설비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공격으로 이러한 제도는 1940년, 완전 해체되었습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이후 한국교회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소통과 공간적 개방성을 가진 교회는 지역의 교육과 문명을 퇴치하는 긍정적인 행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한국경제의 중심이었던 농경문화가 퇴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분화와 핵가족화, 개인화와 공동체의 위기, 도시의 발전과 범죄의 증가와 일탈에 대한 자체적 규제의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② 한국교회와 사회복지의 필요성

1980년대 민주화의 진행은 사회복지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 놓았습니다. 사실상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문가의 70%, 사회복지사업의 교육의 60%, 사회복지지도자의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단체가 사회복지를 주도적으로 해왔고, 빈곤계층의 절대 다수가 직간접적으로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성전건축에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로서 대외적인 지출을 삭감하거나 제외하는 수동적인 복지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가 교회의 사명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 장로교 목회자들의 85%가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22%의 교회가 사회복지를 실현하였고 55%는 사회복지 활동이 정제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교회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84%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는 교인들로 한정하였으며 84%를 개방한 교회도 실재적으로는 교인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아동프로그램 : 아동보호시설지원(14%), 공부방(12%), ▶청소년사업 : 청소년장학사업(46%), 소년소녀가장돕기(33%), 청소년상담(23%), ▶노인사업 : 양로원방문(33%), 경로잔치(32%), 가사보조노력봉사(20%), 무료급식(15%) 등이었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으로는 노력봉사(18%), 가정상담(13%), 수술비 지원(8%), ▶여성사업으로는 주부교실(6%), 직업훈련(1%), ▶실직노숙자사업으로 재정후원(10%), 무료급식(8%), ▶지역주민사업으로 빈민구조(31%), 병원방문위로(23%), 이재민구조(16%), 의료봉사진료(12%) 등이 있습니다. ▶교회직접운영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23%), 노인학교, 양로원, 주간보호센터(11%), 청소년독서실(8%), 모자원(32%), 장애인복지시설(4%), 사회복지관(2%) 등이 있습니다.(1999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로교단조사) 49%의 교회가 교회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자원봉사 참여자들도 저조한 편이며 특별히 지속적인 봉사자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교회의 56%가 교회헌금을 사용하여 재정을 충당하고 개인후원금(27%), 공동모금(8%),

정부지원금(5%) 등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담하는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5%가 가장 많았으며 6~10%를 사용하는 교회도 23%에 달하였습니다. 특별히 구세군 교회는 전체 예산의 11%를 사회복지에 지출하였습니다. 교회의 사회복지가 갖는 문제점은 재정조달(51%)과 공간의 부족(21%), 교인들의 인식부족(9%)이 있었습니다.(1999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로교단조사)

③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방향

한국기독교는 토착적인 샤머니즘(Shamanism)과 유교문화, 오랜 불교적 전통을 배경으로 고착화된 토양위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는 알렌 선교사의 보건의료, 여권신장, 빈곤계층을 위한 고아원 운영, 교육사업을 통하여 한국인들의 생활속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한국민은 최초의 대통령을 기독교인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일제식민지와 6.25한국전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60년대 경공업의 발달과 중공업의 성장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는 교육과 의료,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세상을 견인하였습니다. 이로서 1970년대,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후면에는 사치풍조의 만연, 사행성심리 조장과 확산, 상대적 박탈감과 빈부격차의 증가, 개인주의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의 해체가 도미노 현상처럼 확대되었습니다. 물질만능의 시대로 한국교회는 대형화의 길로 향하였습니다. 1995년, 132개의 교단과 50,232개의 교회 15,760,000명으로 전체인구의 35%가 기독교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지도자들은 개인구원에 포커스를 두고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사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구원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단위입니다. 개인은 교회공동체를 통하여 예배생활, 영적체험을 하여야 합니다. 진보적이고 자유적인 교회지도자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지역사회의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지역선교, 사회선교, 직장선교, 사회복지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참여와 사회적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가 구제와 구호단체로서의 사회참여를 주장하는 반면 진보주의는 사회구조와 사회문제에 직접개입하는 예언자적 사회행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복지와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개인의 믿음과 구원에 있습니다. 복음은 개개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와 남편을 구원의 대상에서 각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분리하고 어떤 사람이 함께 자고 있을 때 한사람은 남고 한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속에서 발현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눈을 감지 말아야 할 것은 그속에 기독교인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선교의 제반활동을 위한 교회의 직제, 의식, 조직, 기능, 역할 등의 구체적인 체계를 의미하는 실제적인 교회본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화신성과 성령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공동체로서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카페를 설립하고 체육관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선도적 교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 사회의 정신과 도덕적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삶의 지표로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 지역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정의한 성경에 입각한 사명이 있습니다.(마태복음5:13~14)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리스도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빈곤계층의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현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안식처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7. 기독교 지역복지 선교

1970년대 이후 원조적 성격을 가진 해외자본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와 정부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빈부격차의 심화, 빈곤계층의 주거불안의 악순환을 비롯해 청소년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정부는 “복지국가실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사실상 전후세대들에게 있어서 교육과 복지는 교회와 교회관련 단체들의 몫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새로운 강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유대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마태복음22:37~39)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님을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복음사역의 대상인 이웃과 이웃의 이웃들에 대하여 눈을 감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교회는 우선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교회밖에 구원자가 있음을 신뢰하고 지역사회속에 숨어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교회의 역할과 비전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 경향이 뚜렷한 사회속에서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무모한 행동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전을 버리지 말고 지속적인 회복을 시도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지역사회의 방향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교회와 교회가 바라는 교회상입니다. 사실상, 지역사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윤리적, 도덕적, 구호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중심의 지역사회 공동체는 삶의 안정과 품격있는 기회균등의 평등성, 안정적인 수입과 높은 수준의 평등성, 가정과 보건과 청결에 관한 복지시설, 레크리에이션과 문화예술적 제공, 윤리강령, 균등한 교육기회와 안정성,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수용과 자세, 민주적인 참여와 기회보장, 생활을 활력있게 하는 기독교적 문화 공동체 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와 무관한 다양한 형식에 대하여 다소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민주적인 태도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지역사회의 중심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속의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수결입니다.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들에 대하여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자유롭게 제시할수 있도록 안정감있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눈에 보인다고 눈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귀로 들었다고 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각각의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적인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자연스럽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능한 모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는 세속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리더십으로 품격높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현실파악이라고도 하고 사태파악이라고도 부르는 개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대할 때 개념은 너무나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로의 접근법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 없는 지도자에게는 구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웃을 향한 선교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선교적 관점에서 점검해 볼 내용은 일곱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와 그것은 배경은 무엇인가? 교회가 달성하려는 목적의식은 분명한가? 교회내외의 수혜자의 규정과 욕구해결 의지는 있는가? 사업을 위한 예산, 조직, 자원봉사는 체계적인가? 평신도 지도자들과 전교인들을 위한 동의와 지침은 있는가? 교회내의 유용한 시설과 인적자원은 확보되어 있는가? 사업에 관한 일목요연한 프로세스는 갖추었는가? 시대적 요구와 객관성있는 프로그램의 변화 또한 적절성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영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계층별 프로그램은 더욱더 세밀화되어 있고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회참여는 창조섭리와도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창조물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다.(창세기1:31)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치리의 권리와 자녀의 축복과 정복의 권리를 위임하셨습니다.(창세기1:28)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곧바로 창조의 질서는 무너졌고, 인간은 무질서와 분열과 의심과 공격성과 지배성과 동물적 본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문제, 빈곤과 질병의 문제, 전쟁과 죽음의 문제, 정복과 피정복의 문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문제로 확산되며 강자와 약자의 개념이 상호 대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현재성은 보편적인 섭리속에서 여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넘어 모든 세상에 특별하고 온전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복음의 혜택은 개인적 구원관을 넘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지역사회 구제와 교육과 문화와 의료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상호 생물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적 차원에서 교회의 사회참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복음적 사명을 중심으로 사회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교회는 사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이 사회의 건강성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대

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달란트와 다섯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다르게 깊은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오류는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복음에 관한 “사랑”의 열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헌신과 소통의 결합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교회의 사회참여는 지속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활속에서 구현된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복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통하여 그가 누구를 믿는가를 것을 발견합니다. 사회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신뢰”의 가치를 증명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인간과 인간사회속에서 생산된 인간의 새로운 가치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믿음도 불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특별히 구별되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약속”과 “계약”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불순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과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동산중앙에 하나뿐인 선악과가 아니라 모든 곳에 편만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을 “하지 말라”(Do not)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Do it)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명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복음을 위해 전력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회밖으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속에서 교회를 구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오해하여 십자가를 던져 주었을 때 그것을 다시 세상으로 던져 주라는 것이 아니라 던져준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돌을 던졌을 때 두려움과 비겁함으로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그 후의 모든 책임과 보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사회속에서 담대하였던 스테반의 믿음이었고, 사도바울의 용기였습니다.

① 교회의 복지실천 방향

교회의 지역사회를 향한 복지실천은 지역봉사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동향에 반응하며 그들의 욕구 충족에 일정부분 기여해야 합니다. 물량주의적 교회성장론을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복지관이 요구됩니다. 믿음은 세상속에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실천이 될 때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를 분리하려는 이원론적 사고를 지양하고 사회를 구현하는 복음적 성격을 가진 교회의 위상을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중

심에서 보다 열린 교회가 되어야 지역주민을 흡수할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의 우월의식과 주도의식을 버리고 상호협력관계속에서 사회복지를 구현하려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는 구호와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오직 실천이 있을 때 지역사회는 교회를 교회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의 작은 수단일뿐 사회개혁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가 개혁되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에 앞서서 교회가 갖는 신학적 입장은 무엇이며 지역사회봉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가운데 하나인가 하는 인식과 봉사이론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무엇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에 대하여 어떤 역할이 필요하며, 독자적인 사업과 연계사업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타교회와 타 복지관과의 연합운동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영적 부분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 가는 공동체로서의 역할 증진에 노력하고, 사회정의와 사회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냄으로서 교회의 연행이 사회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세상의 연합보다 강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이 세상앞에 선포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교회의 영향을 받도록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역사회참여는 교회가 지역속에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지역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의 달란트가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와 예산, 조직, 인적자원 편성, 교회사업의 목적, 교회내외의 수혜자에 대한 조사, 교회내의 유용가능한 시설확보와 교회공동체의 동의절차, 사업전개와 피드백에 관한 프로세스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② 교회의 사회복지 사명과 역할

지역사회복지 주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교육적 역할과 공동체 회복, 비전과 발전 방향의 모티브 제공, 사회 지도자적 멘토, 지역의 권리와 관련한 대변자 역할, 사회 안전망 구축과 인적자원의 활용가치 증대, 개혁자로서의 일정부분 감당, 지역의 사소한 대립과 갈등, 청소년 문제, 자녀교육문제, 학교폭력문제, 학업과 진학, 취업문제에 이르는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전략에서 교회는 지역의 건강성과 영적 건강성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교회상과 현재의 교회관을 바로 알고, 교회는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교

회상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과 가치를 갖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교회를 통하여 얻고 싶어하는 복지와 구제와 장학에 대하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합니다. 교회시설 개방에 있어서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유효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정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이단종파의 무분별한 유입과 함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문화센터는 교회학교와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회학교 시설물 관리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유효한 인적자원의 활용은 교인들의 희생과 섬김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희생의 종교이며 섬김의 종교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희생과 섬김이 없다면 사회복지는 물론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고백과 복음사역입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세대를 이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계승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과 사명입니다.(마태복음4:23) 교회는 특별히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로의 초대를 보내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교회는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누가복음4:18~19) 예수께서는 병든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와 패배주의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마태복음25:31~40) 다른 사람과 이웃을 향한 위로와 격려와 구제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25:40)

8. 교회복지 서비스의 전망과 과제

사회복지의 대상은 취약계층의 보호대상자 등 복지서비스의 보편적 수요자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는 현금급여, 교육훈련, 재할, 상담, 치료, 간호, 요양, 주간보호 등과 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서비스정보망이 구축되어 서비스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계층과 고령화 독거노인 등에 확충되어야 합니다.

▶생활복지와 지역환경 조성 :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각종 시설과 장비 등을 개발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리성이 강조 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차별적 대우나 불필요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없어야 합니다.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 : 교육, 문화, 환경, 여가활동 등과 같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고 복지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교회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여복지와 복지자원의 다원화 : 사회복지 전문가를 비롯하여 민간, 기업, 기독교, 학교가 사회복지활동의 주체와 후원기관으로서 이사회, 사회봉사자, 후원자의 영역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참여 경로를 통하여 사회복지 활동이 활발하도록 합니다.

▶통합복지와 복지자원의 효율화 : 정부와 민간으로 양분된 사회복지를 통합하는 형태의 복지시스템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자원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최적의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함께 참여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차상위계층과 같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가족과 사람에 대한 서비스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생산적 복지와 복지사회 건설 : 사회복지의 생산성은 최소의 자본으로 최고의 효율을 위한 재투자적 가치입니다. 재생산의 효율성은 복지시설의 활용과 수익구조의 개선이 요구되며 교회는 생산적 복지를 위한 후원자 활동과 자원봉사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회복지전략으로는 ▶하나님께서 각양 각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계발하고 교회의 사회복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내 사회봉사부, 지역선교부, 지역봉사부, 지역후원회와 같은 기구가 설치되어야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전화조사, 방문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과 구체적인 욕구를 알아 봅니다. 이로서 교회와 단체는 그것에 합당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회내 자원봉사자의 전문, 비전문, 윤리교육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내 시설과 공간에 영유아탁아소, 청소년상담, 주부교실, 장애인교육, 경로대학, 임종간호, 요양보호 등 구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을 수용하고 수요자 맞춤형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주거복지시설

을 통하여 노인의 집, 여성의 집, 가출청소년의 집, 미혼모의 집 등으로 활용합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설립과 운영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원설립과 운영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성경, 찬송가, 설교집, 노인신문과 안경, 보청기, 지팡이, 휠체어, 안마기, 약탕기, 트레이드 밀 등과 같은 보조기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역복지서비스 참여와 재정조달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회복지에는 교회의 사정과 내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① 사회복지기관 프로그램

▶중독 : 알콜 및 약물중독, 청소년 흡연과 음주 ▶노령 : 가사도우미, 가정건강보조서비스, 요양보호사 ▶아동복지 : 입양, 위탁보호, 탁아, 시설보호, 유치원, 재가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협회 ▶범죄와 비행 : 성희롱, 폭력, 학대, 왕따, 청소년범죄, 제도, 보호관찰, 가석방 ▶장애 : 만성질환, 시청각장애, 직업재활 ▶사회사업교육, 사회사업조사 ▶환경과 사회계획 ▶가족 및 인구계획 ▶가족서비스 : 가족평생교육, 가족치료, 결혼문제 상담, 미혼모 상담, 이혼문제, 가정폭력, 학대, 낙태문제, 자살, 우울증 ▶청소년서비스 : 청소년상담, 학교사회사업, 지역아동센터, 바우처 ▶보건서비스 : 지역사회정신보건, 유전병상담, 모자보건, 공중보건, 정신보건, 정신박약자 서비스 ▶주거 :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무상, 공공임대주택 ▶농촌사회사업 ▶공공근로 ▶공적부조